

# 201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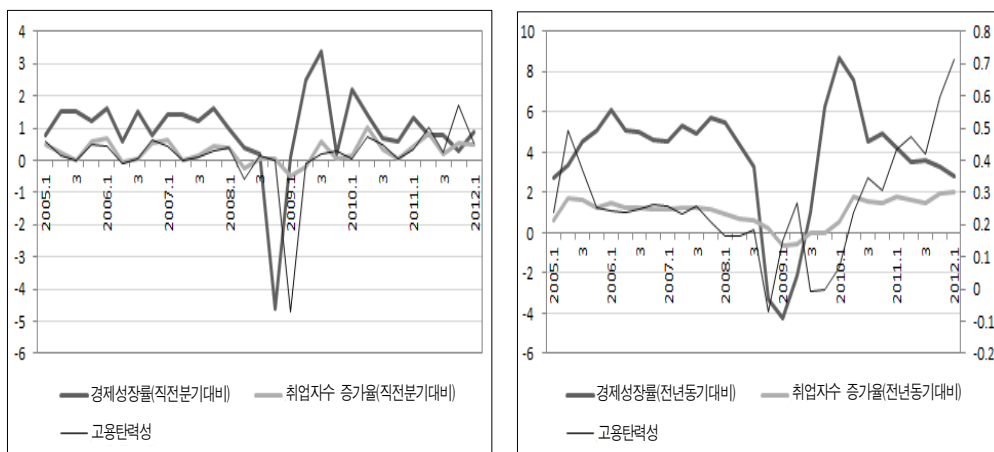
동향분석팀

## I. 2012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49천 명 증가해 침체된 경기와는 달리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고용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과거의 흐름과는 다른 이례적인 큰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흐름은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그림 1, 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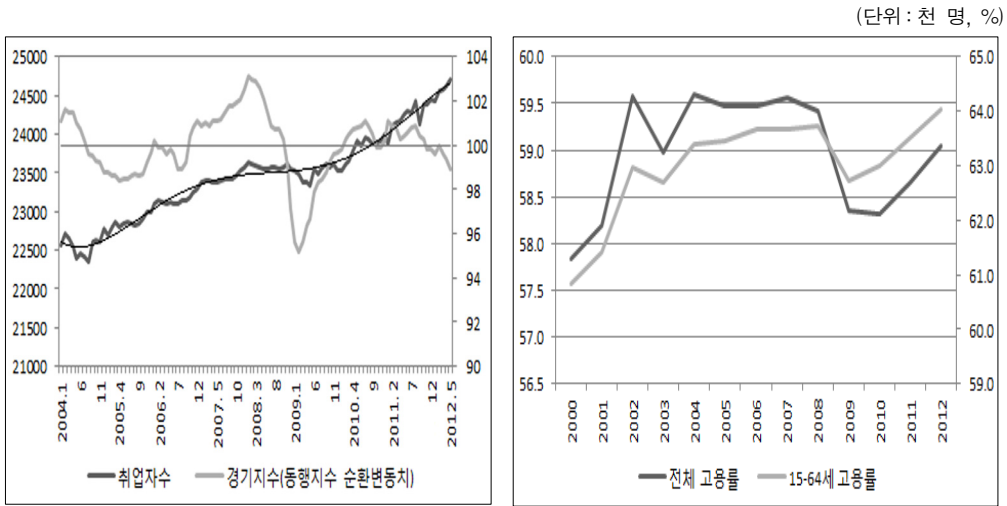
[그림 1] GDP 성장률, 취업자 수 증가율, 고용탄력성 추이 - 전분기대비(좌측), 전년동기대비(우측)

(단위 : %)



주: 고용탄력성=취업자수 증가율+경제성장률로 계산.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2] 주요 고용지표 추이



주: 좌측의 취업자 수는 계절조정된 월별 수치임. 우측은 연도별 수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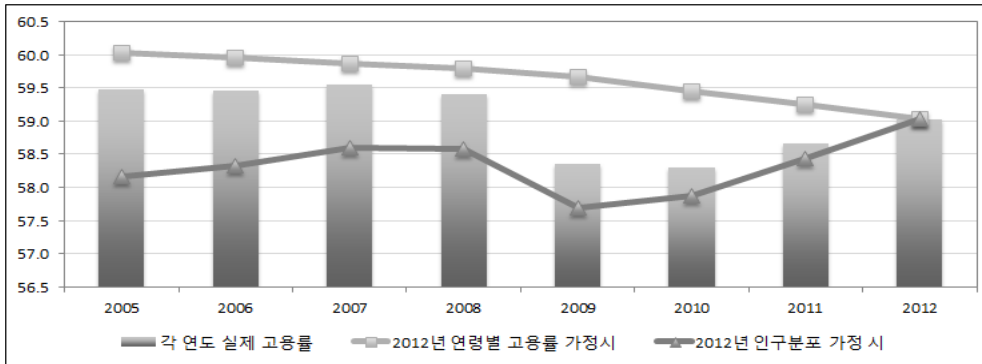
그러나 고용률을 보면 2012년 상반기 현재 59.0%에 머물고 있어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상반기 59.6%나 2008년 59.4%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률의 더딘 회복은 취업자 인구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 현재 15~64세 고용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그림 2 참조), 1980년대 이래로도 최고치이기 때문이다.

인구변화가 전체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기 위해 연령별 고용률과 연령별 인구 내 비중을 이용해 가상의 고용률을 산출해 보았다(그림 3 참조).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을 2007년 연령별 인구분포에 적용해 인구 전체의 고용률을 계산해 보면 2007년 상반기의 고용률은 59.6%보다 높은 59.9%가 된다. 다른 해도 마찬가지로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해 각 연도 고용률을 계산하면 대체로 실제치보다 높은 고용률이 계산된다. 이는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이 다른 해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다음으로 2012년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다른 해의 연령별 고용률에 적용해 고용률을 계산해 보면 실제치보다 낮은 고용률이 계산된다. 이를테면, 2007년 상반기의 고용률은 실제치 59.6%보다 1.3%p 낮은 58.3%가 된다. 이는 연령별 고용률이 변화하지 않아도 고령화로 인해 고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을 적용하면 각 연도 고용률이 실제치보다 상승하고, 2012년 연령별 인구분포를 각 연도 연령별 고용률에 적용하면 2012년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계산되는 것을 볼 때, 인구효과를 건어낼 경우 2012년 고용률은 이미 비교대상 연도들의 고용률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림 3] 연령별 고용률과 인구분포를 이용한 고용률 시뮬레이션(각 연도 상반기)

(단위 : %)



주: 5세 구간으로 연령을 나눈 후  $\sum(2012년\ 각\ 연령구간\ 고용률 \times 각\ 연도\ 해당\ 연령구간\ 인구비중) = 2012년\ 연령별\ 고용률\ 가정시$  각 연도 가상의 고용률,  $\sum(각\ 연도\ 각\ 연령구간\ 고용률 \times 2012년\ 해당\ 연령구간\ 인구비중) = 2012년\ 인구분포\ 가정시$  각 연도 가상의 고용률을 계산하였음.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9 (1~6)	2010 (1~6)	2011 (1~6)	2012 (1~6)
생산가능인구	39,170	39,598	40,092	40,590	41,052	39,964	40,476	40,938	41,441
(증가율)	(1.1)	(1.1)	(1.2)	(1.2)	(0.0)	(1.2)	(1.3)	(1.1)	(1.2)
경제활동인구	24,216	24,347	24,394	24,748	25,099	24,246	24,602	24,962	25,359
(증가율)	(1.0)	(0.5)	(0.2)	(1.5)	(1.4)	(0.0)	(1.5)	(1.5)	(1.6)
취업자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3,321	23,603	24,016	24,465
(증가율)	(1.2)	(0.6)	(-0.3)	(1.4)	(1.7)	(-0.6)	(1.2)	(1.7)	(1.9)
(증가수)	(282)	(145)	(-72)	(323)	(415)	(-140)	(283)	(412)	(449)
참가율	61.8	61.5	60.8	61.0	61.1	60.7	60.8	61.0	61.2
(남성)	(74.0)	(73.5)	(73.1)	(73.0)	(73.1)	(73.0)	(72.9)	(73.0)	(73.1)
(여성)	(50.2)	(50.0)	(49.2)	(49.4)	(49.7)	(48.9)	(49.2)	(49.5)	(49.8)
고용률	59.8	59.5	58.6	58.7	59.1	58.4	58.3	58.7	59.0
(남성)	(71.3)	(70.9)	(70.1)	(70.1)	(70.5)	(69.8)	(69.7)	(70.1)	(70.5)
(여성)	(48.9)	(48.7)	(47.7)	(47.8)	(48.1)	(47.4)	(47.4)	(47.7)	(48.1)
실업자	783	769	889	920	855	926	999	947	894
실업률	3.2	3.2	3.6	3.7	3.4	3.8	4.1	3.8	3.5
(남성)	(3.7)	(3.6)	(4.1)	(4.0)	(3.6)	(4.3)	(4.3)	(3.9)	(3.6)
(여성)	(2.6)	(2.6)	(3.0)	(3.3)	(3.1)	(3.2)	(3.7)	(3.6)	(3.4)
비경활	14,954	15,251	15,698	15,841	15,953	15,718	15,874	15,976	16,082
증가율	(1.2)	(2.0)	(2.9)	(0.9)	(0.7)	(3.1)	(1.0)	(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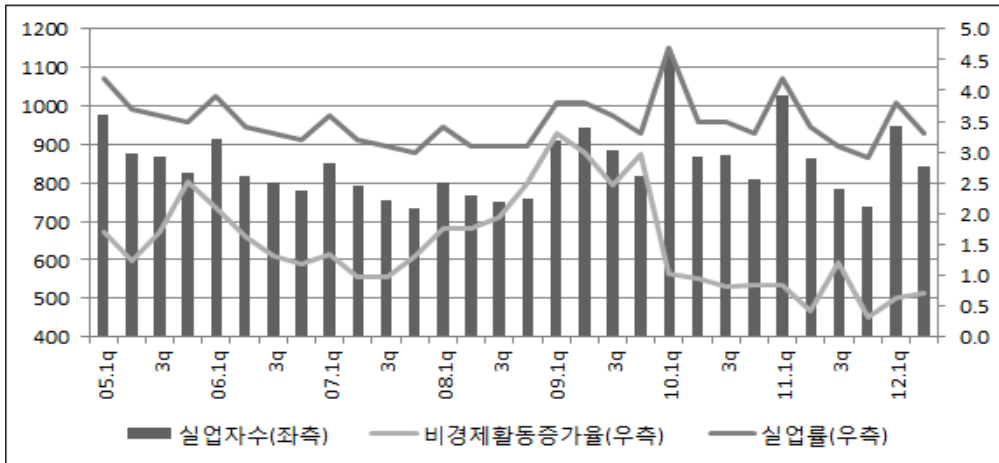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전년동기대비로 볼 때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림 2] 좌측의 계절조정된 월별 취업자 수 증가 추이를 보면, 2010년과 2011년에는 추세선을 능가하는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가 각 연도 상반기에 나타났지만, 2012년 상반기에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수치에 반영될 2012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전년동기대비 40만 명 이상의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상반기에 비해 2012년 상반기 생산가능인구는 503천 명 증가했는데, 동 기간 취업자 수는 449천 명 증가하고 실업자는 53천 명 감소해 경제활동인구는 약 397천 명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약 76%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셈인데, 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는 10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비경활 증가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낮은 비경활 증가율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이 본격화된 2010년 1분기부터 지속된 현상이다. 그 때 이후 실업률도 하락 추세를 이어 왔다(그림 4 참조).

[그림 4] 실업자 수,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II. 2012년 상반기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 1.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 상승

2012년 상반기 고용성과는 취업자 수 기준으로 볼 경우, 주로 50대가 주도(29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 3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젊은 층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층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 효과를 제외하려면 연령별 고용률을 보아야 한다.

25~29세 고용률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상반기에는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기보다도 1.4%포인트 높은 69.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대와 50대의 고용률도 지난해는 물론이고 2007년 동기보다 높았는데, 특히 50대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였다.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수명 연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자 관련 각종 복지 및 고용대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이 역시 지난해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다음으로 인구변화와 고용률 개선이 2012년 취업자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해해 보았다. 인구증가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 효과를 계산하려면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총 취업자 수 증가분을 인구변화로 인한 취업자 수 변화분과 고용률 변화로 인한 취업자 수 변화분으로 분해하여야 한다. 전자인 ‘인구효과’는 고용률이 2011년과 동일하다는 전

〈표 2〉 연령계층별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추이(각 연도 상반기)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고용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5~24세	1,547	1,452	1,343	1,365	1,380	1,466	86	26.0	24.5	22.6	22.9	23.0	24.1
25~29세	2,674	2,672	2,626	2,569	2,492	2,403	-89	68.4	68.4	67.8	68.3	69.0	69.8
30~39세	6,021	6,034	5,848	5,820	5,797	5,724	-73	72.6	73.1	71.3	71.7	72.1	72.2
40~49세	6,462	6,515	6,506	6,520	6,588	6,605	18	78.2	78.2	77.5	77.5	78.2	78.3
50~59세	4,001	4,228	4,402	4,699	4,988	5,281	293	68.8	70.1	69.9	70.5	71.1	72.0
60세 이상	2,565	2,560	2,596	2,631	2,771	2,985	214	37.6	36.4	35.8	34.9	35.4	36.4
전 체	23,270	23,461	23,321	23,603	24,016	24,465	449	59.6	59.4	58.4	58.3	58.7	59.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제가 필요하므로 ‘(2012년 인구×2011년 고용률) - 2011년 취업자 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 후자인 ‘고용률 효과’는 2012년 총 취업자 수 증가분에서 위 식의 결과를 빼면 얻을 수 있다.

<표 3>은 취업자 수 증가를 분해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고용률이 2011년 상반기와 같다면 2011년 대비 2012년의 생산가능인구 변화로 인해 193천 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을 것이며, 고용률 증가로 인해 256천 명의 취업자가 발생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구증가보다 고용률 변화가 취업자 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이

〈표 3〉 연령계층별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2011년 고용률을 가정했을 때의 가상의 2012년 취업자 수(가)	2012년 실제 취업자 수(나)	인구효과: (가) - 2011년 취업자 수(다)	고용률 효과: (나)-(가)
15~24세	1,396	1,466	16	70
25~29세	2,376	2,403	-117	27
30~39세	5,716	5,724	-81	8
40~49세	6,598	6,605	11	7
50~59세	5,219	5,281	231	62
60세 이상	2,904	2,985	133	81
전 체	24,209	24,465	193	2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반기.

〈표 4〉 근속기간별 고령 임금근로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전 체
50대	2009	727	227	247	329	254	702	2,486
	2010	796	228	285	390	266	780	2,745
	2011	805	245	300	441	318	854	2,963
	2012	820	261	322	488	344	928	3,162
	2012-2011 증감	14	16	22	47	25	74	198
60세 이상	2009	469	119	129	151	116	86	1,068
	2010	546	106	125	172	104	107	1,160
	2011	546	129	135	180	111	140	1,241
	2012	591	131	158	202	115	163	1,359
	2012-2011 증감	45	2	23	22	5	23	1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반기.

다. 40대 이상에서는 인구증가가 중요했지만, 30대 이하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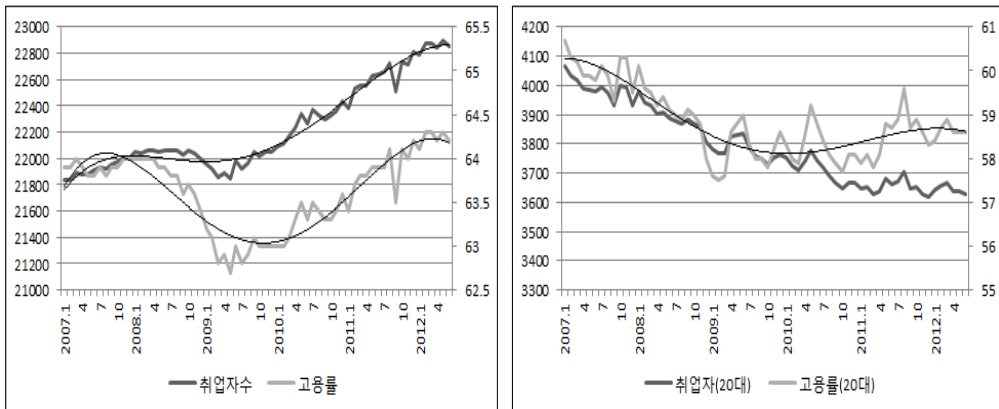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가용하므로 근속기간별로 50세 이상 임금근로자수 추이를 살펴보자. 신규 채용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6개월 이하 근속자는, <표 4>에서 보듯이, 50대의 경우 2011년 상반기 805천 명에서 2012년 상반기 820천 명으로 약 15천 명 증가하였다. 반면 근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사람은 854천 명에서 928천 명으로 약 74천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신규채용의 지속 및 증가도 취업자 증가에서 중요하지만,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의 증가도 50대 취업자 증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근속기간별 증가분만으로 보면 50대에서 2년을 초과해 근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146천 명 늘어 이 시기 임금근로자 증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0년 상반기~2011년 상반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국제금융위기에서 막 벗어난 2009년 상반기~2010년 상반기에만 다른 특징이 있다(표 4 참조).

60세 이상은 신규 채용된 사람들이 45천 명 증가해 50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표에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60~64세는 50대와 동일한 패턴인 반면, 65세 이상에서 신규 채용자가 증가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수치로는 이번 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잘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림 5]~[그림 7]을 통해 계절조정된 월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았다. 고용률에는 추세를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5] 좌측의 15~64세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2012년 1월 이래 상승추세는 꺾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2]에서 보았던

[그림 5] 연령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15~64세(좌측), 20대(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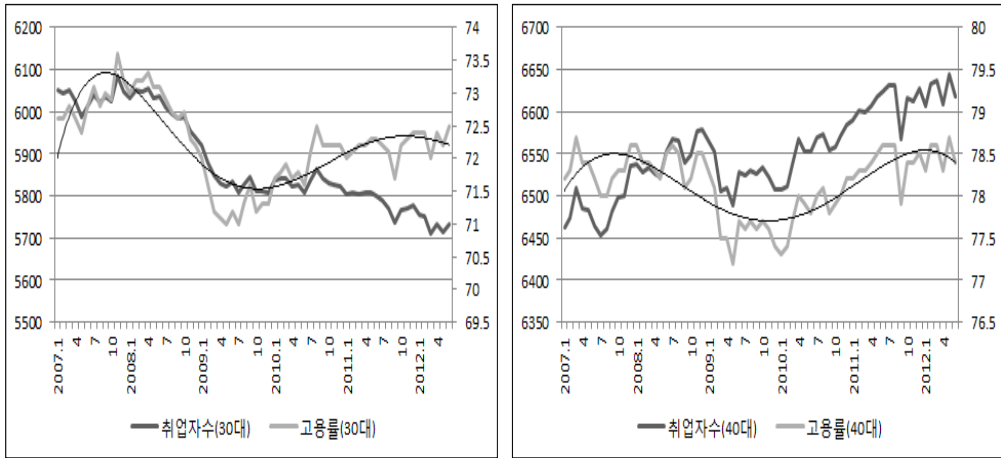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주: 계절조정된 수치임. 고용률에는 추세를 함께 표시하였음.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6] 연령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30대(좌측), 40대(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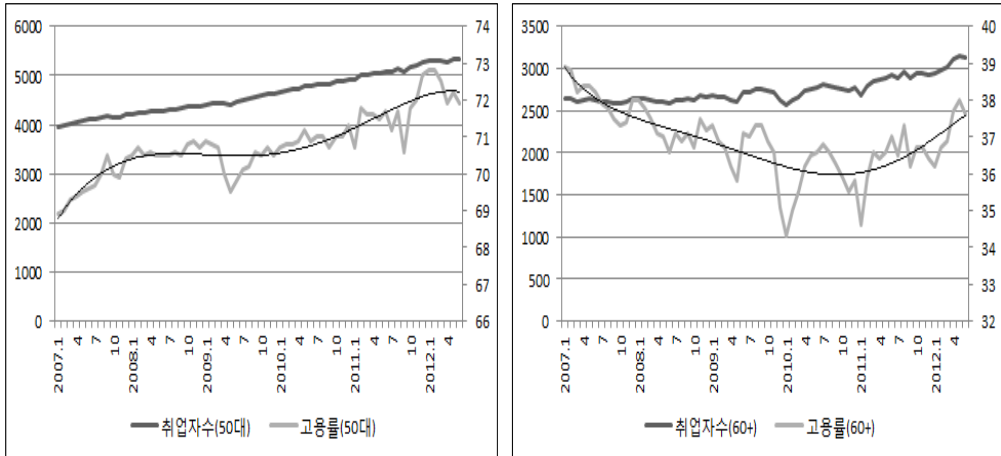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주: 계절조정된 수치임. 고용률에는 추세를 함께 표시하였음.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7] 연령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50대(좌측), 60세 이상(우측)

(단위: 천 명, %)



주: 계절조정된 수치임. 고용률에는 추세를 함께 표시하였음.  
 자료: 통계청, KOSIS.

전 연령 취업자 수 증가에서 나타난 완전한 상승 지속 추세와는 다른 것으로,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서 65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의 역할이 컸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5] 우측에 있는 20대의 경우를 보아도 2012년 상반기의 흐름은 증가가 아니라 정중동에 가까운 모습이다. 30대와 40대를 보아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며(그림 6 참조),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50대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7 좌측



〈표 5〉 학력별·연령별·성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2007	2011	2012	2007	2011	2012
남성	15~24세	18.0	16.1	17.6	69.1	56.0	64.7
	25~29세	65.4	62.8	61.9	77.4	77.2	77.4
	30~39세	87.8	85.8	85.9	92.1	92.3	92.2
	40~49세	89.5	88.3	88.9	94.4	94.5	94.4
	50~59세	82.5	83.6	84.2	88.5	89.6	90.7
	60세 이상	51.7	49.5	50.0	41.7	41.7	41.2
여성	15~24세	20.5	18.0	18.4	72.5	71.3	70.2
	25~29세	52.3	55.1	57.9	72.2	71.9	72.3
	30~39세	53.7	49.9	48.9	55.5	56.4	57.1
	40~49세	65.6	67.4	66.7	61.4	58.9	60.4
	50~59세	54.1	57.7	58.3	52.1	52.7	55.3
	60세 이상	28.0	25.6	26.9	21.3	20.2	22.4

주 : 위 수치에는 각급 학교 재학자가 포함되어 있음. 24세 이하 고졸자만 제한하면, 남성은 2007년 50.7%, 2011년 39.9%, 2012년 41.2%, 여성은 2007년 58.8%, 2011년 44.8%, 2012년 44.7%의 고용률을 기록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반기.

참조). 다만, 60세 이상을 보면 다른 연령대와 달리 여전히 상승추세가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우측 참조). 바로 이와 같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흐름이 2012년 상반기에도 전체 취업자 수를 상승추세로 만든 힘으로 보인다(그림 2 좌측 참조).

다음으로 성 및 학력별로 나누어 고용률을 분석해 보았다(표 5 참조). 전문대졸 이상은 남성의 경우 15~24세, 25~29세, 50대에서 전년 동기보다 고용률이 상승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25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전문대졸 이상 남성 30대, 40대는 고용률이 정체되는 모습이지만, 90%가 넘는 수준이어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고졸 이하 학력 중 남성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는 25~29세를 제외하면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서는 40대 이하의 고용률이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특히 25~29세의 경우 2007년 동기보다 3.5%p나 떨어진 상태이고, 30대도 1.9%p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여성은 25~29세는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30대는 2007년 대비 4.8%p나 고용률이 하락했고, 전년보다도 고용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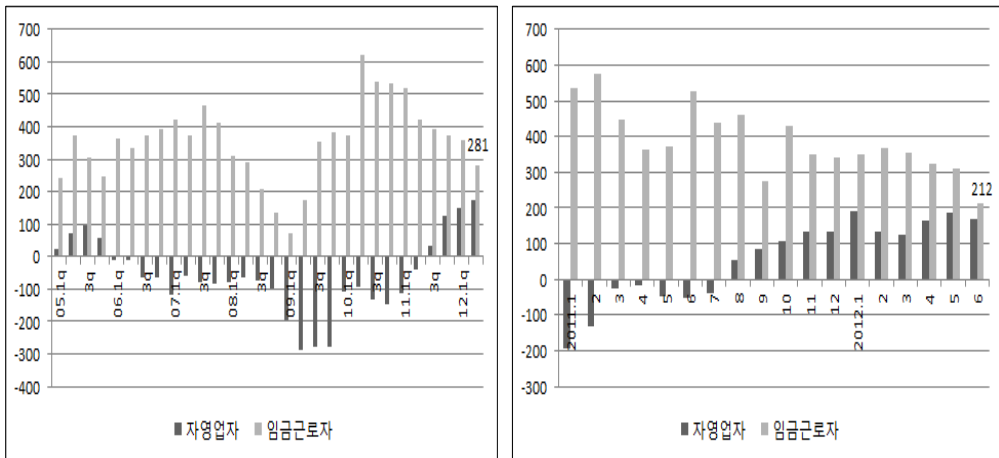
1) 경기가 좋아지면 입직만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이직도 활발해진다. 실직한 사람들의 비중을 볼 경우 남성 30대와 40대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에서 2009년에 비해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이직 사유를 보면 휴폐업 등의 비중은 2009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반면, 개인적 이유와 근로조건 불만족에 의

## 2. 상용직 및 자영업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 지속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2년 상반기의 고용성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은 자영업자의 증가였다. 2005년 이래 자영업자 수는 감소를 지속해 왔지만, 2011년 8월 전년동기대비 53천 명 증가를 시작으로 그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증가를 지속해 왔다. 임금근로자는 2011년 2분기까지는 40만 명 이상의 큰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감소해 2012년 2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281천 명, 2012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12천 명 증가 수준까지 떨어졌다(그림 8 참조).

[그림 8]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 전년동분기대비(좌측), 전년동월대비(우측)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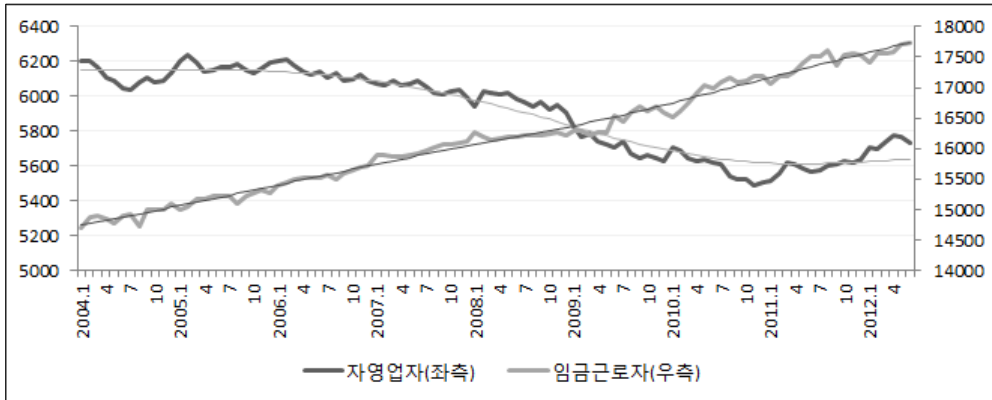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계절조정된 월별자료를 통해 추이를 보면 자영업자 수는 2011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 4-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추이를 지속해 현재까지 총 약 1년 반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9 참조). 2012년 6월에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2010년과 2011년 추세선 위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2년 들어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전월대비 흐름을 볼 수 있는 계절조정 월별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자영업은 증가, 임금근로자는 증가폭 둔화라는 흐름이 뚜렷이

한 이직 비중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직을 했지만, 30-40대 연령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워 재진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 고용률 정체에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011년 7월호 『최근 미취업자 변동에 대한 분석』을 참조.

[그림 9]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수 추이 - 계절조정 후 월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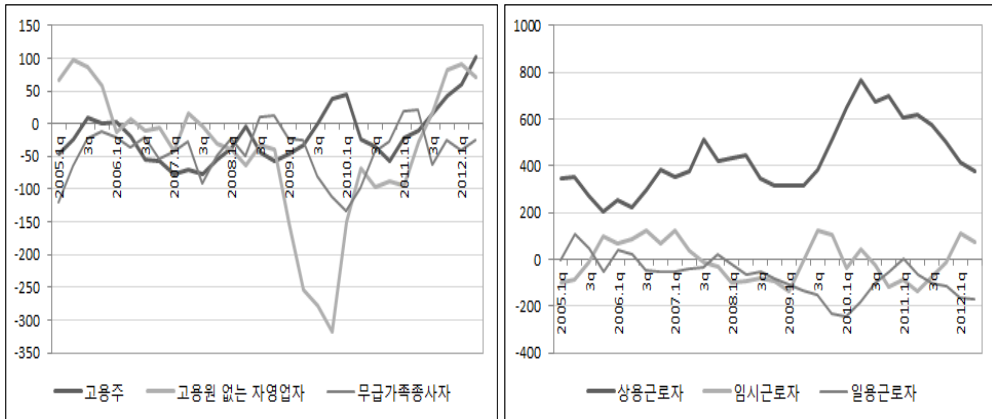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추세선은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를 이용해 작성하였음.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10]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세분해 보면 상용직 중심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 우측 참조). 상용직의 증가폭은 2011년에 비해 2012년 들어 감소했지만 여전히 30만 명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은 2012년 1분기와 2분기에 증가하였고 일용직은 각 분기에 10만 명 이상의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2012년 상반기에 감소를 지속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모두 증가를 지속했다.

자영업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증감을 보면, 2011년 상반기에 비해 2012년 상반기에 50대

89천 명, 60세 이상 82천 명, 25~29세 15천 명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연령대에서도 감소의 정도는 다른 해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고연령층 중심의 자영업자 증가로 인해 자영업자의 연령분포는 고연령대 비중이 보다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각 연령대별 취업자 안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25~29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이를테면, 2011년 상반기 50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3.2%였는데 2012년 상반기에는 33.1%로 0.1%p 감소하였으며, 60세 이상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 상반기 45.3%에서 2012년 상반기 44.8%로 0.5%p 감소하였다.)

〈표 6〉 연령별 자영업자 수, 연령분포, 연령 내 비중(각 연도 상반기)

(단위: 천 명, %)

	자영업자 수					연령 분포					연령 내 비중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15~24세	65	60	68	53	51	6.2	5.8	5.8	5.8	6.0	4.4	4.4	5.0	3.8	3.5
25~29세	169	158	140	130	145	11.4	11.3	10.9	10.4	9.8	6.3	6.0	5.5	5.2	6.0
30~39세	1,037	923	910	820	808	25.7	25.1	24.7	24.1	23.4	17.2	15.8	15.6	14.1	14.1
40~49세	1,903	1,777	1,679	1,613	1,601	27.8	27.9	27.6	27.4	27.0	29.2	27.3	25.8	24.5	24.2
50~59세	1,508	1,552	1,603	1,657	1,746	18.0	18.9	19.9	20.8	21.6	35.7	35.3	34.1	33.2	33.1
60세 이상	1,264	1,235	1,204	1,255	1,337	10.9	11.1	11.2	11.5	12.2	49.4	47.6	45.8	45.3	44.8
전 체	5,944	5,703	5,605	5,528	5,689	100.0	100.0	100.0	100.0	100.0	25.3	24.5	23.7	23.0	2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자영업자의 증가는 신규 창업의 증가뿐 아니라 기존 사업체의 퇴출감소(=유지 증가)에도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각 연도 8월에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통해 사업체 유지기간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데, 이를 보면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 8월에 비해 2010년 8월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중 11.9%→11.5%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 10.7%→10.5%로 감소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중 1~3년 유지 17.3%→19.6% 증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 10~20년 유지 20.0%→21.5%로 증가 등). 지난해 8월 자영업자 53천 명 증가를 시작으로 그 이후 자영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이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이를 기존 사업체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납득할 만하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 비해 2011년 하반기에, 2011년 상반기나 2010년 상반기에 비해 2012년 하반기에 신규 폐업자라 할 수 있는 전직 자영업인 2개월 이하 미취업자는 대략 월평균 10천~20천 명 가량 감소해 창업 증가만이 아니라 유지의 소폭 증가, 퇴출의 소폭 감소도 자영업자 수 증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07년 하반기 월평균 186천 명→2008년 하반기 160천 명→2009년 하반기 193천 명→2010년 하반기 180천 명→2011년 하반기 168천 명, 2008년 상반기 183천 명→2009년 상반기 187천 명→2010년 상반기 182천 명→2011년 상반기 199천 명→2012년 하반기 172천 명). 월평균 퇴출이 10천~20천 명 감소하면 누계로는 6개월간 60천 명에서 120천 명가량 퇴출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므로, 창업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면 상당한 수의 자영업자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감소로 이어지고 대형마트 규제가 자영업 소득 증가 또는 상황 개선 기대로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도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3.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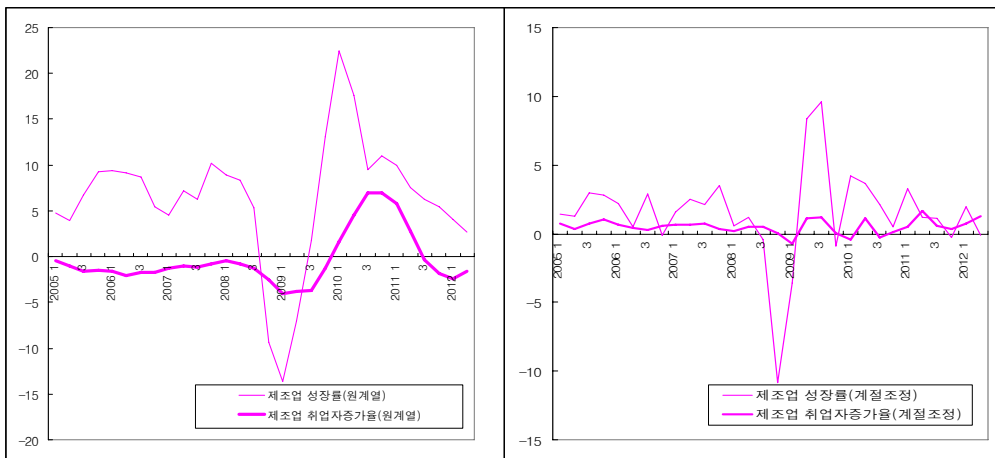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증가세를 견인했던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2011년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동안 제조업 부문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8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동 기간 동안 170천 명이 증가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부진은 제조업 부문 성장부진과 직결되어 있다.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조업 성장률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2010년 1사분기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하여 정점을 기록한 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부문에서의 성장률의 둔화는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사분기 제조업 부문 고용탄력성은 -0.606으로 나타나 2011년 1사분기 0.58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상반기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감소가 가장 컸던 산업은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금속가공산업중분류(25) 부문(38천 명 감소)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상반기 동안 제조업 부문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56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임금근로자 증가율 둔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상용직의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어 상반기 동안 11천 명 증가에 머물렀는데, 이는 2011년 동 기간 205천 명 증가한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사라진 상용직 일자리는 20~30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용호조 속에서 제조업 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속하는 상용직 일자리가 감소한 것, 그것도 사라진 상용직 일자리의

[그림 11]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취업자증가율 추이(원계열, 계절조정계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7〉 제조업 고용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6)	2008 (1~6)	2009 (1~6)	2010 (1~6)	2011 (1~6)	2012 (1~6)
제조업 전체		-42	-52	-126	191	63	-48	-24	-157	117	170	-84
지위	임금근로자	-23	-49	-96	162	69	-34	-39	-102	72	175	-56
	상용직	60	9	10	184	110	58	2	28	112	205	11
	임시직	-71	-49	-73	4	-37	-73	-38	-101	-7	-31	-27
	일용직	-13	-9	-33	-26	-4	-19	-4	-29	-34	1	-40
	비임금근로자	-19	-3	-30	29	-6	-14	16	-55	45	-5	-28
	고용주	-8	-13	-9	11	2	-0	-3	-29	20	4	-4
	자영자	-1	12	-18	-4	-3	-7	22	-19	-0	-8	-7
	무급	-10	-2	-3	22	-5	-7	-3	-7	25	-1	-17
연령	20세 이하	-3	-3	-3	7	1	2	-8	-4	4	3	1
	20~29세	-42	-71	-47	24	-19	-44	-77	-54	1	17	-42
	30~39세	-33	-27	-40	12	-0	-43	-10	-47	-3	27	-70
	40~49세	5	-20	-42	38	20	11	-15	-44	25	42	-27
	50~59세	23	57	27	92	46	15	72	11	84	63	44
	60세 이상	6	13	-21	19	15	11	15	-19	6	18	11
규모	300인 미만	-5	-8	-67	206	76	3	11	-107	168	158	-89
	300인 이상	-37	-44	-60	-14	-13	-50	-34	-50	-51	12	5
근속연수	6개월 미만	-59	-13	-54	70	-31	-62	-14	-97	93	-13	-44
	6개월~1년 미만	-27	-32	-27	44	10	-15	-47	2	1	30	-15
	1년 이상	62	-3	-14	49	90	43	22	-8	-22	158	2

주 : 근속연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대부분이 20~30대 연령층이었다는 점은 향후 고용정책 수립 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최근 제조업의 고용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고용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조업 부문 50세 이상 연령층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자영업 비중은 줄어들었다.

또한 제조업 부문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6개월 미만 근속자)은 2011년에 이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상반기에는 이미 제조업 부문에 진입해 있던 30~40대 1년 이상 근속자의 고용변동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자영업은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나홀로 사업체나 영세사업체 창업과 더불어 저성장 분위기 속에서 기존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에서 자영업은 2011년 상반기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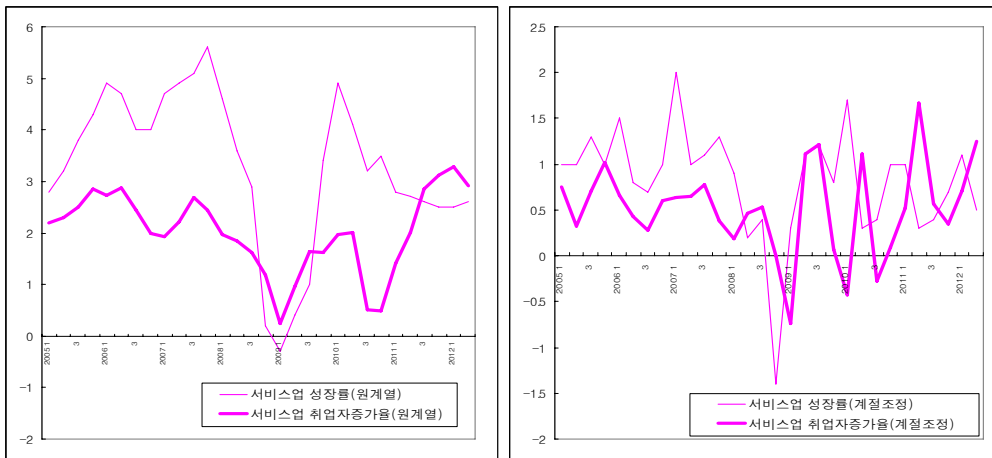
#### 4. 최근 고용호조는 서비스업에서 견인

2012년 상반기 동안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516천 명 증가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0%를 차지하여 전년동기대비 무려 0.9%p나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증가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50~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 동안 자영업자는 161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132천 명이 서비스업 부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자영업은 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대 연령층에서의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이 상반기 동안 16천 명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령층에서조차도 자영업은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상반기 동안 서비스업 부문에서 임시직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들 임시직은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0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서비스업 성장률·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8〉 서비스업 고용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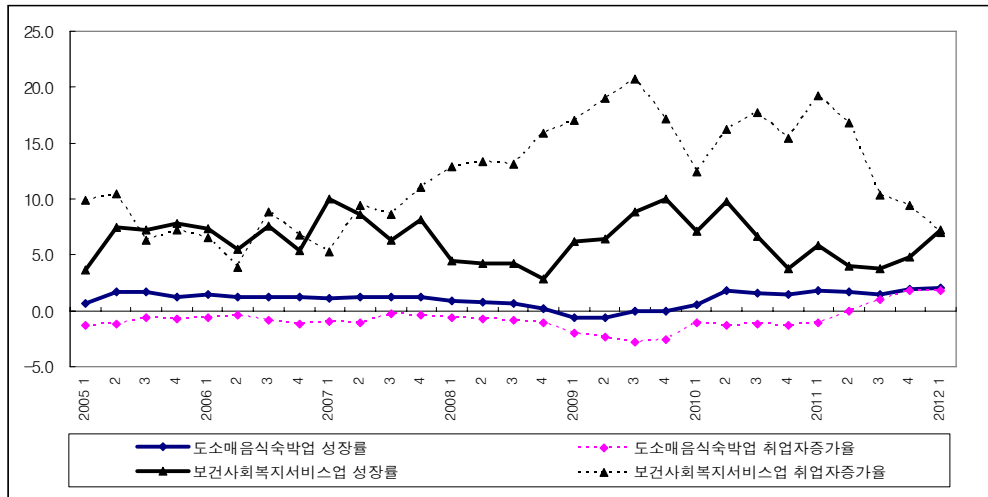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6)	2008 (1~6)	2009 (1~6)	2010 (1~6)	2011 (1~6)	2012 (1~6)
서비스업 전체		356	260	179	200	386	278	334	96	318	279	516
연령	20세 이하	4	-15	-10	20	22	-9	-2	-28	20	27	0
	20~29세	9	-26	-55	-79	-21	14	-10	-56	-52	-74	18
	30~39세	-58	26	-97	21	1	-84	57	-122	33	-2	28
	40~49세	65	127	74	23	56	31	122	87	32	52	53
	50~59세	202	131	157	164	214	175	148	143	201	178	240
	60세 이상	134	16	109	51	113	151	19	70	84	98	177
지위	상용직	294	305	360	502	475	234	372	259	596	420	374
	임시직	94	-25	116	-46	-57	151	-53	54	8	-75	105
	일용직	-27	1	-87	-85	-39	-77	30	-65	-114	-20	-81
	고용주	-40	4	9	-33	6	-53	10	4	-14	-27	87
	자영자	52	-31	-182	-78	2	32	-19	-136	-75	-40	45
	무급	-17	5	-39	-59	-0	-10	-5	-21	-83	21	-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3〉 고용증감이 큰 도소매·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성장률과 취업자증가를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9〉 서비스업 자영업자 고용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6)	2008 (1~6)	2009 (1~6)	2010 (1~6)	2011 (1~6)	2012 (1~6)
전 체		12	-26	-173	-112	8	-21	-9	-132	-88	-67	132
연령	20세 이하	2	-1	-1	1	-1	0	-1	-2	1	-0	-3
	20~29세	-5	17	-21	-14	-2	-7	15	-10	-9	-23	16
	30~39세	-38	-61	-95	-35	-63	-50	-49	-100	-13	-77	-10
	40~49세	-30	8	-72	-79	-32	-58	24	-65	-87	-40	-1
	50~59세	50	-1	28	11	53	53	-8	40	19	32	69
	60세 이상	33	12	-12	4	52	41	9	5	0	41	60
산업*	도소매업	-69 (37.1)	-23 (36.9)	-27 (36.5)	-52 (35.2)	-22 (34.1)	-89 (37.1)	-24 (36.8)	-23 (36.7)	-27 (36.0)	-70 (33.9)	51 (34.5)
	운수업	55 (45.6)	-9 (44.8)	5 (45.2)	11 (44.9)	32 (45.6)	49 (44.5)	9 (44.6)	1 (45.2)	13 (44.7)	27 (45.7)	19 (45.2)
	숙박음식점업	-19 (32.0)	-15 (31.3)	-49 (30.5)	-50 (28.6)	6 (29.5)	-12 (32.6)	-17 (31.8)	-51 (30.5)	-42 (29.3)	-27 (28.6)	53 (30.8)
	협회 및 단체 등 개인서비스업	37 (44.5)	-10 (43.6)	-66 (41.2)	-20 (39.4)	6 (38.4)	39 (44.1)	-5 (43.2)	-47 (42.0)	-24 (39.1)	6 (39.1)	-2 (38.5)

주 : \*는 서비스업 내 자영업 비중이 높고 최근 고용변동이 큰 산업을 대상으로 함.  
 ( )안은 각 산업 내 자영업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Ⅲ.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11년 12월 3.7%로 전망하였으나 2012년 4월 3.5%, 2012년 7월 3.0%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하반기의 전망치는 4월 수정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었다. 그만큼 당초 예상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2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저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예상 밖의 고용호조로 1사분기, 2사분기 고용탄력성은 각각 0.709, 0.732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발발된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 경기회복의 지연, 중국 경제성장률 정체 등으로 2012년 세계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위축된 3.2%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0〉 한국은행 2012년 경제전망

(단위: %, 만 명)

	2011. 12				2012. 4				2012. 7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5	3.7	3.6	4.2	3.3	3.6	3.4	4.0	3.2	3.3	3.2	3.8
경제성장률	3.4	3.8	3.7	4.2	3.0	3.9	3.5	4.2	2.7	3.2	3.0	3.8
민간소비	2.6	3.6	3.2	4.0	1.8	3.8	2.8	4.1	1.4	2.9	2.2	3.5
수출	2.5	7.7	5.2	10.4	3.8	5.8	4.8	9.4	3.0	5.7	4.4	9.0
취업자 수	31	26	28	31	42	28	35	32	45	31	38	32
실업률	3.6	3.2	3.4	3.3	3.5	3.2	3.3	3.3	3.5	3.1	3.3	3.2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표 11〉 고용탄력성 추이

	전 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2005	0.335	-0.181	0.694	-0.440	1.258
2006	0.249	-0.219	0.573	-0.188	1.025
2007	0.239	-0.148	0.452	-0.126	1.046
2008	0.267	-0.445	0.588	-0.607	3.511
2009	-0.943	2.091	0.973	2.849	2.347
2010	0.217	0.341	0.315	-0.172	2.294
2011	0.479	0.218	0.880	0.092	2.986
2012	0.529				
2008 1/4	0.167	-0.050	0.426	-0.170	2.925
2	0.168	-0.102	0.505	-0.237	3.178
3	0.184	-0.245	0.558	-0.247	3.101
4	-0.069	0.273	6.860	0.258	5.469
2009 1/4	0.152	0.299	-0.694	0.567	2.727
2	0.271	0.526	2.667	0.758	2.936
3	-0.004	-1.974	1.585	1.578	2.346
4	-0.003	-0.093	0.469	-0.516	1.709
2010 1/4	0.067	0.071	0.399	-0.132	1.756
2	0.242	0.254	0.486	-0.191	1.663
3	0.345	0.726	0.159	-0.187	2.680
4	0.310	0.634	0.136	-0.179	4.137
2011 1/4	0.433	0.582	0.493	-0.218	3.330
2	0.480	0.374	0.734	-0.013	4.242
3	0.420	-0.047	1.097	0.244	2.722
4	0.596	-0.337	1.248	0.474	1.945
2012 1/4	0.709	-0.606	1.371	0.725	0.960
2	0.732	-0.592	1.118	1.287	1.013

주: 2012년 연간 고용탄력성은 <표 12>의 하반기 고용전망을 반영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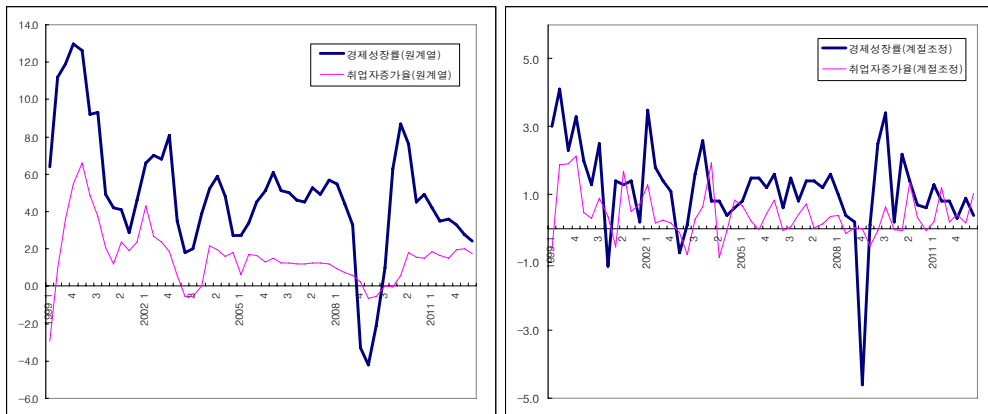
이러한 세계경제의 위축은 2008년 하반기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부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중국, 유로지역의 경기부진과 재정불안으로 인한 주력시장과 주력품목의 고전으로 수출증가세의 둔화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미국 수출은 두 달 연속, 중국과 EU 지역 수출은 넉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으로 수출은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4% 하락하여 2011년 6월 16.5% 상승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수출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2011년 1사분기 8.4%, 2사분기 4.5%에서 2012년에는 각각 2.6%, 1.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7월 26일 2012년 2/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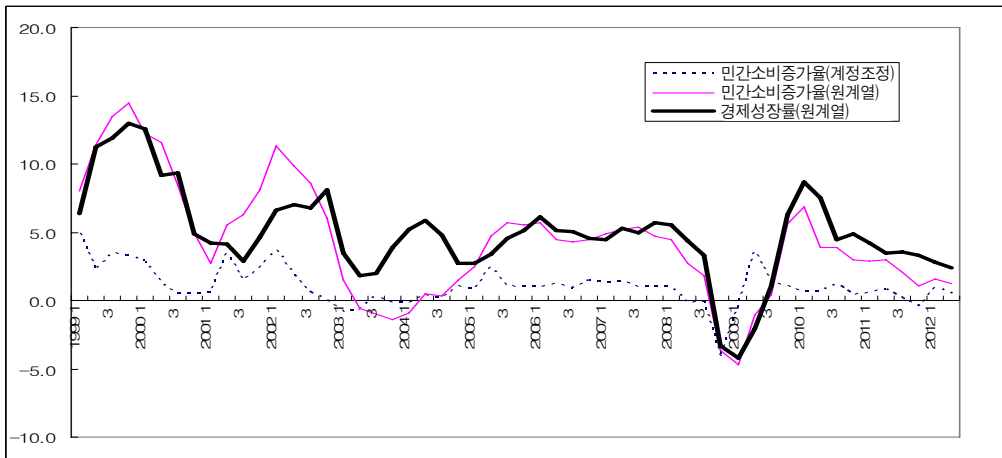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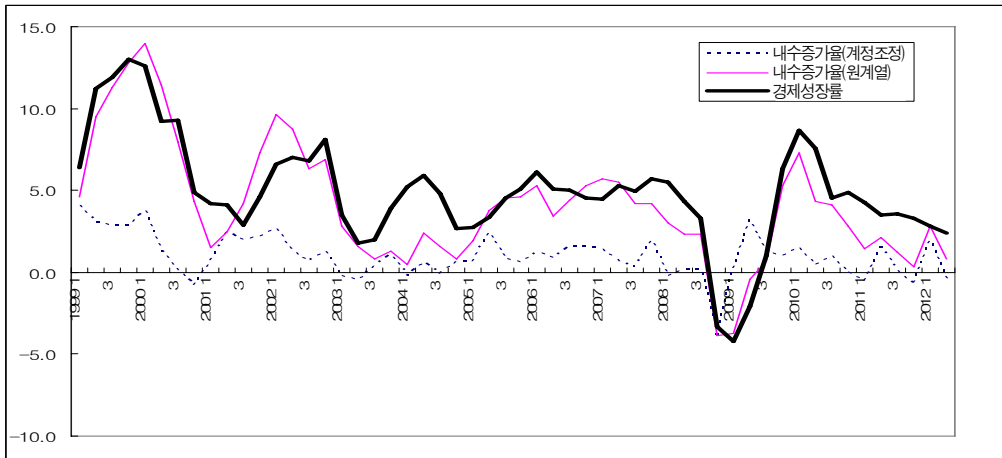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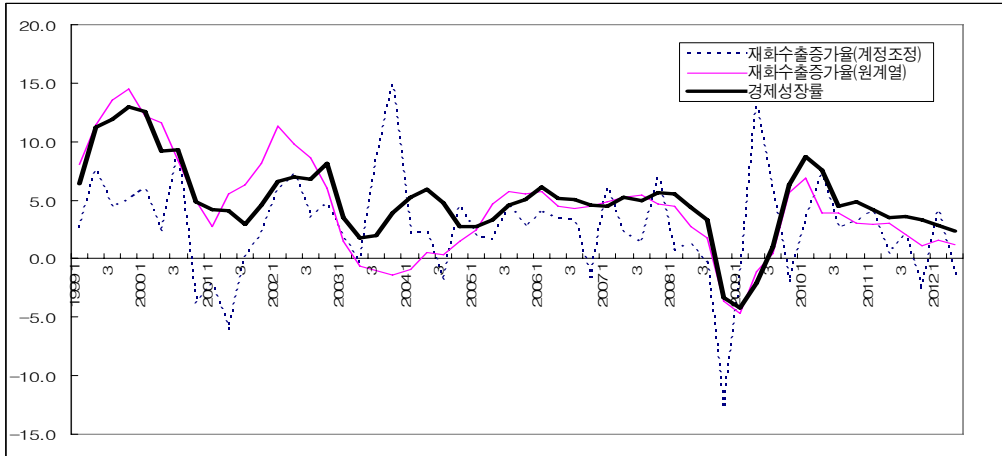
2008년 하반기에 붙여다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국내 실물경기의 침체는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부진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제조업의 성장기여도 또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 저성장은 제조업 부문 고용감소를 초래해 2011년 3사분기 제조업 부문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2012년 2사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고용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 경기 흐름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은 수출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강했지만, 2012년 상반기에는 수출증가세의 둔화, 민간소비의 증가율 둔화로 인한 내수부문의 부진 등으로 저성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예상되고, 이러한 수출여건의 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과 총저축률의 하락으로 투자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사분기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은 2012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2012. 7. 13)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3년까지 매 분기 1% 내외로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2012년 2사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4% 증가에 그쳤다(2012. 7. 26). 이러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변화에 기인한 고용증가세와 2006년 이후 계속되었던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꺾인 2011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자영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49천 명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2012년 상반기의 저성장 기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반기의 고용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표 12〉 하반기 고용전망

(단위: %, 천 명)

	2011			2012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3.8	3.4	3.8	2.6	3.2	3.0
생산가능인구	40,938	41,166	41,052	41,441	41,656	41,548
경제활동인구	24,602	24,895	24,748	24,963	25,236	25,099
경제활동참가율	61.0	61.3	61.1	61.2	61.4	61.3
취업자	24,016	24,473	24,244	24,465	24,785	24,625
(증가율)	1.7	1.7	1.7	1.9	1.3	1.6
(증감수)	412	418	415	449	312	381
실업자	947	763	855	894	810	852
실업률	3.8	3.0	3.4	3.5	3.2	3.3
고용률	58.7	59.4	59.1	59.0	59.5	59.3
비경제활동인구	15,976	15,931	15,953	16,082	16,061	16,071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에 후행성을 띤 지표이다. 2012년 하반기 고용은 상반기 저성장에 따른 경기후행적 반응과 2011년 하반기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려 고용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012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전망치(3.2%)하에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12천 명 증가할 것이며 고용률은 59.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연간 취업자는 전년대비 381천 명 증가에 그쳐 2011년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업률이나 고용률 지표는 2011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로 인한 한계자영업의 재무여건이 개선되어 사업체의 유지가능

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자영업의 증가세가 2011년에 이어 지속된다면 60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이들의 고용증가가 상반기에 이어 지속될 때 취업자증가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이례적인 증가가 고용의 질까지 개선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KLI**

〈부표 1〉 산업별·사업체규모별 고용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6)	2008 (1~6)	2009 (1~6)	2010 (1~6)	2011 (1~6)	2012 (1~6)
전 체		282	145	-72	323	415	167	301	-140	283	412	449
산 업	농림어업	-58	-37	-38	-82	-25	-100	-5	-5	-124	-12	-27
	광업	1	6	-0	-2	-4	-1	7	-1	-0	-1	-5
	건설업	16	-37	-91	33	-2	23	-18	-78	-9	-22	56
	전기가스 등	10	4	5	-17	-3	16	6	5	-19	-0	-6
	제조업	-42	-52	-126	191	63	-48	-24	-157	117	170	-84
	서비스업	356	260	179	200	386	278	334	96	318	279	516
	하수폐기물 등	-0	5	6	-7	6	-5	7	8	-10	8	3
	도소매업	-38	-41	-32	-20	58	-43	-37	-45	-6	16	79
	운수업	54	1	-1	33	52	63	18	-15	44	32	57
	숙박음식점업	-0	-5	-107	-47	-36	-13	-4	-81	-59	-49	41
	출판 등	-17	-7	25	16	35	-33	12	7	21	18	27
	금융보험업	20	15	-55	42	38	6	31	-59	43	24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17	12	17	-31	-3	-22	18	18	-28	-0
	전문, 과학 등	21	55	87	40	77	37	20	95	40	76	66
	사업시설관리 등	135	20	-29	78	64	126	47	-22	51	92	19
	공공행정, 국방 등	-5	43	191	-71	-9	-22	60	88	16	-17	24
	교육서비스업	38	44	48	-33	-113	52	51	32	30	-157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등	59	103	156	155	158	43	101	146	137	197	92
	예술, 스포츠 등	-8	48	-28	-11	37	-12	32	12	-32	47	2
	협회 및 단체 등	72	6	-86	5	45	70	17	-78	28	14	16
가구내 고용활동 등	23	-11	-3	3	3	20	0	-7	0	1	17	
국제 및 외국기관	-4	1	-4	1	-1	-8	2	-3	-2	4	-5	
규 모	300인 미만	337	117	-189	354	378	264	263	-237	318	350	442
	5인 미만	4	-79	-440	-49	105	-4	-23	-360	-101	3	255
	5~9인	87	30	-20	127	56	89	53	-45	101	99	69
	10~29인	124	73	120	95	123	26	121	103	107	98	128
	30~99인	109	55	114	155	-15	117	91	41	191	9	4
	100~299인	13	38	37	26	108	37	21	23	20	142	-14
	300인 이상	-55	28	117	-31	37	-97	38	97	-35	62	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